

한우산업의 안정대책 방안



고영두

경상대학교 축산학부 교수

1. 머리말

IMF시대를 살아가야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 시대를 경제식민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국치라고도 하면서, “누구 탓이나? 언제까지 같것인가?” 하는 것으로 온통 나라안이 시끄럽다. 나라가 곤경에 빠지게 되니 각 사회단체, 직장, 기업, 금융 등 할것 없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식생활 문화가 순조로울 것인데, 군살빼기를 하다보니 한우산업이 정말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고 생계를 이어온 한우사육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사료값도 되지 않는 형편이고 하니 농민들은 정말 난처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한우산업이 오늘과 같이 극도로 취약

한 상황을 맞게된 배경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정리해 봄으로서 안정적인 한우산업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곱씹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한우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가.우량한 비육밀소의 생산 기반 취약

한우산업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값 파동 시기마다 그동안 애써서 개량하고 육성해온 우량한 암소들을 거침없이 도축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다시 소값이 상승하면 번식우 확보에 혈

안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정부 통계에 잠깐 내용만 보아도 500kg 비육소 한 마리에 320만원대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1996년까지만 해도 가임암소 수는 134만두를 유지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1998년 6월 현재 123만두로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암소도축 두수는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다. 문제는 도축대상 번식우가 우선 값나가는 우량한 것이라는 데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량한 번식우를 도태하고 우량한 번식우는 계속하여 송아지 생산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적인 자질이 떨어지는 번식우에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를 육성비육하게 됨으로서 육성

기간이 길어지고 사료비의 부담이 가중되며, 육질이 불량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우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송아지의 차등가격제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코드 이표 장착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정착시켜, 도축되는 모든 개체의 도축성적이 한곳으로 집적되고 이들의 혈통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있는 송아지의 향후 육질과 성장능력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성적에 따라 송아지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고급육으로 승부를 걸고있는 우리로서는 유전적으로 불량한 비육밀소를 대상으로 거세를 실시하고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30~40%에 이르고 있어 비육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사료비 부담의 가중으로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지를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육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송아지의 유전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예측 시스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육성된 한우개량단지 내의 우량 번식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이들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지원했던 자금을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

.....

한우산업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값 파동 시기마다 그동안 애써서 개량하고 육성해온 우량한 암소들을 거침없이 도축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다시 소값이 상승하면 번식우 확보에 혈안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유전적인 자질이 떨어지는 번식우에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를 육성비육하게 됨으로서 육성기간이 길어지고 사료비의 부담이 가중되며, 육질이 불량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우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저히 함으로써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나. 번식우의 생산성 저하로 송아지생산비 증가

그동안은 1, 2두의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아 농산 부산물에만 의존하여 번식우를 사육함으로써 사료비 부담이 적고, 유희노동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식우 농가가 생산비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우농가도 전업화 내지는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7년도 말 50두이상 사육가구는 4만 1천농가에서 '98년 5월 현재 5만 1천농가로 1만 농가가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농산 부산물에 의한 번식우 사양은 불가능해 졌으며, 각종 농후사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사료까지도 구입사료에 의존하

게 되었으며, 대규모의 시설비 부담 및 분뇨처리 비용이 가중되어 생산비는 오히려 치솟으면서 적정한 수준의 송아지 가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번식우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번식우의 경우는 비육우와 달리 그 특성에 맞는 사육방법을 동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사에 밀집 수용함으로써 번식효율의 저하, 번식 공용기간의 단축, 난산과 조산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악조건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다분히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에 비육우와 번식우 농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온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번식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번식효율을 개선하고,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 번식우 방목장을 개발하여 지역 및 계절에 따라 저비용 관리체계를 도

입하여야 한다.

지금은 온갖 잡목으로 뒤덮여 사 람도 오르기 어려운 마을 야산들은 20여년 전만 하여도 지금의 번식 우들의 조상이 뛰놀며 배를 채우던 방목지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 요가 있다.

다. 조사료의 생산기반이 취약 하다.

소라는 가축은 생리적으로 풀만 먹고 자라도록 되어있다. 최근 소 에게 중요한 육류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이 강요되면서, 빨리 자라고 고기의 맛과 연도를 좋게 하기 위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정량의 농후 사료를 급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 정도 가 지나쳐서 풀사료를 양념 정도 로 급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성장에 따른 지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풀사료 의 생산비가 많이 들어 농가가 직 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보다 구 입조사료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상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지 관리 면적 및 사료재배 면적이 1990년에 최고를 나타낸 후 매년 감소하여 1996년에는 72%로 감 소되었다. 이 기간중의 우리나라 사회전반의 양상을 되돌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산비와 가축관리비 등을 가장 많이 낮출 수 있으므로 조사 료 생산의 기간이 되어야 할 초지

〈표 1〉 조사료 생산기반의 현황

구 분	1980	1990	1995	1996	'96/'80	'96/'90
초지관리 면적	48	90	66	63(1.2%)	131%	70%
사료재배 면적	78	181	164	132(6.7%)	169	73
밭	40	138	140	98(12.3%)	245	71
논 뒷그루	38	43	24	34(2.9%)	89	79
합 계	126	271	230	195	155	72

관리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 은 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는 적절한 방목과 분뇨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지나친 환경 규제로 방목이 사실상 금지되고, 분뇨의 초지 환원 역시 지난하게 되어짐으로써 농가의 적극적인 초 지관리 의지를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산지는 장기간에 걸 친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으로 잡목 으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 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들 산지는 입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있어 신규 초지 개발에 제한 요소로 작용 함으로서 초지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풀사료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초지와 관련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초지개발에 따른 지 원을 강화하고, 국유지를 임대하여 조성한 초지 중 부실초지 관리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다.

농림부에서는 초지개발을 권장 하기 위한 다양한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일선에서 초지개발을 신청 할 경우 각 지역의 환경단체와 산 립관계 부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축산관련 부서에서는 우선 거부반

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선의 행정기관의 입장 을 살펴서 보다 강력한 초지조성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선진축산국가들의 드넓은 초 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수백년에 걸쳐 대를 이어 조금씩 개발하고 보태고 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산물인 것이다. 짧은 기 간에 모든 것을 이룰수는 없듯이 꾸준히 여건을 개선한다면 우리나 라도 얕은 야산은 대부분 초원으로 바뀔날이 올 것이다.

둘째, 하천부지나 유휴농지를 풀 사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굴곡이 심 하고, 작업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각종 기계장비의 개 발에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유휴지의 소유자는 지방행정 기관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풀사료 생산농가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들 과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농가 교육을 통한 토지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 지형별, 용도별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개 발 보급하고, 생산된 풀사료의 영

〈표 2〉 쇠고기의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의 비교

국가별	가격별	산지가격 (500kg 1두당)	도매가격 (지육 kg당)	소매가격 (고기500kg당)	(소매가격·2) ÷ 도매가격
미국 (choice급 평균가)	저가(97.12)	724US\$	2.26US\$	3.06US\$	2.708
	고가(94년)	758	2.39	3.12	2.611
	차이(%)	95.5	94.6	98.1	
일본 (화우거세A-4)	저가(95년)	542,000엔	1,772엔	2,625엔	2.961
	고가(97.12)	568,000	2,185	2,735	2.503
	차이(%)	95.4	81.1	95.9	
한국 (큰소 수소)	저가(98.6)	2,000,000원	5,187원	7,386원	2.848
	고가(96.3)	3,082,000원	8,856	8,282	1.870
	차이(%)	64.9	58.6	89.2	

- 주) 1. 미국: Livestock, Dairy and Poultry situation and outlook(USDA)
- 2. 일본: 축산정보(일본축산진흥사업단)
- 3. 한국: 축산물유통일보(축협중앙회)

양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처리 및 보관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라도 체등 급제의 미정 착과 유통구조의 무질서

한우는 세계 어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소보다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이 잘되는 품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은 외국의 값싼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전가의 보도인양 휘둘러 온 것이 바로 품질우위에 의한 국제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고,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제 아무리 훌륭한 보검이라도 정성들여 닦아주고 갈아주지 않으면 서서히 녹슬어 결국에는 한낱 쇳덩이로 변하고 말 듯이, 아무리 맛있는 쇠고기를 생산한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일이며, 결국은 농가에 손실을 초래

하여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는 고품질육 정책은 극히 제한적인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우산업 전체를 이끌어 갈 방향으로서의 타당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 브랜드화에 성공한 업체나 단체의 경우 모두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또는 생산자와 백화점간의 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불과하다.

즉, 일반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중간과정이 생략된 경우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중간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으며, 정책관계자나 한우산업 관계자 모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심중팔구 실패로 귀착될 것이란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 하나의 산업이 존속 또는 발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 만큼은 유통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답합에 의해 극도로 왜곡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지가격이 약 40%가 하락하여도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10% 정도의 하락에 그치고 그 차액을 소수의 정육업자가 이득을 독점하고 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값이 싸지면 소비가 늘어나서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조정되어 산업이 안정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산지 소값이 아무리 내려도 소비자에게 반영되지 않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계획경제 체제가 아닌 한 지금의 불균형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개선해 보겠다고 정책자금을 동원하여 수매를 해서 비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매를 해서 산지가격을 억지로 지지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도매가격은 극도로 하락한 이후의 일이며, 게다가 저가의 기간을 장기화시켜 생산자는 일시적인 손실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며 결국 단기간에 입을 손실을 단지 기간을 연장하여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투자한 자금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자

〈표 3〉 산지소값 변동 및 소비자 가격

구분	96.3	6	9	12	97.3	6	9	12	98.3	6
수소(천원/500kg)	3,082	2,514	2,865	2,657	2,416	2,417	2,494	2,276	2,120	2,000
도매가(원/kg당)	8,856	7,479	7,383	6,354	5,334	5,771	6,747	5,986	5,421	5,187
소매가(원/kg당)	16,564	16,258	15,944	15,862	15,182	15,030	14,936	14,794	14,966	14,772
소매가/도매가(%)	8,856	7,479	7,383	6,354	5,334	5,771	6,747	5,986	5,421	5,187
수매두수	-	-	-	-	1월 25일부터 99,541두 수매				7월 현재 87,506두 수매	

주) 1. 축산물 유통일보(축협중앙회)를 참조하였음

2. 수매두수는 축산물 가격 및 수매동향(농림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였음

명한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유통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부의 축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매 가격 대비 소매가격의 비율이 수매 이전에는 250%이내 였으나 수매가 시작된 이후 최고 285%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산지 소값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의 하락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결국 1,440억 원(수매 및 방출로 인한 차액 77만 원 X 187,047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쇠고기 유통 마진으로 날아간 셈이다.

유통과정에서 얻어진 이익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담합과 이들의 교섭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반면에 생산자는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교섭력과 정책개발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산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우산업은 서서히 쇠약해져 오늘날의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유통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이미 계획된 축산물 종합 처리장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 소형포장으로 슈퍼 판매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브랜드 개발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판매장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중간마진을 최소화하고, 산지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쇠고기 수급전망 및 대농가 대처방안을 발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망이 발표되어 왔으나 그 정확도가 낮아 농가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방향과 반대로 대처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선진 기법을 도입하여 정확한 쇠고기 수급전망이 발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

고 한우농가를 위한 정책개발 및 대 내외적인 시장여건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도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고 농민들의 협조가 미흡하여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우수한 전문 인력의 대다수가 그 반대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자조금을 징수하든, 단체의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든 종사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이 한우산업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종사자인 농가 스스로가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이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각자가 생각하고 경험한 사실들을 숨김없이 말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해온 것들을 두서없이 정리하였으나 견해가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어 왔고, 따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다.

이 글에 적은 내용들도 또 다른 견해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591-751-5512〉